

# 구성과 특징

## 🔗 「독해력 증진 어휘집」은

- 수능 국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 독해력의 본질이 되는 어휘력을 길러 줍니다. 기출 지문을 통해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문장 속에 쓰인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DAY 01부터 DAY 20까지 매일 꾸준히 수능 필수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STEP 1 문학 독해 증진', 'STEP 2 독서 독해 증진', 'STEP 3 헛갈리는 어휘'로 구성하여 수능 국어 지문 독해에 필수적인 어휘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또한 DAY 05, 10, 15, 20에서는 실전 고난도 기출 문제를 통해 독해 능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STEP 1  
DAY 18 문학 독해 증진 STEP 2 STEP 3 학습 날짜 월 일

다음 글을 읽고 풀음에 답하십시오.

2018학년도 9월 모의사  
읽어두지! 중요한 어휘

이형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① 흉대**를 할 수 없게 한 달이나 지나서 노적”도 떨어지고 **② 기별**을 견디지 못하여 문건결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국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③ 흉대**한단 말인가?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든 잠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문백이라도 죽다면 모진과 처자를 먹어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공극하였다. 이형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을 감전하여, 내가 지금 문건의 노적가 없으니 별고 면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검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됐다.”

1.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기별 ② ㉡: 서장 ③ ㉢: 흉대  
④ ㉣: 별상 ⑤ ㉤: 장송

**통지**  
용 통령 통 / 통 알 지  
기법을 보내어 알게 함.  
㉠ 그는 문건이 허독하다는 **통지**를 받고 곧장 고향으로 떠났다.

**기갈**  
혀 주릴 기 / 목 마를 갈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피로와 **기갈**에 시달린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기별(告別)**: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또는 소식을 적은 종이.  
**허기(虛飢)**: 음식 굶어 서 태근한 느낌.

- 문학, 독서 영역의 평가원 기출 지문과 함께 어휘 문제를 풀어 보면서 지문 독해에 필요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문의 옆에는 ‘알아두자! 궁극한 어휘’를 배치하여 평가원 기출 지문에 쓰인 어휘들을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어휘에 대해 **다**(다이어), **동**(동음이의어), **더**(더 알아둘 어휘) 등을 제시하여 어휘를 확장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헛갈리는 단어, 홀로 사전 찾기로 더 확실하게 CHECK!’ 표를 통해 어려운 어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문학 TIP: 고전소설 속 상형/정서 (2)

상사(相事)	서로 그리워 함	초연(初戀)	처우치고 첫사랑
망극(望極)	같이 애통, 같이 애타는 슬픔	애류(哀流)	눈물남
문변(文邊)	말만	고적(告跡)	괴로움과 눈겨움
대자(大者)	크게 기어남, 크게 기어타다	대장(大將)	크게 놀람
대연(大連)	장까지 명과 초보	대장난파(大驚失色)	바람이 어마할다
문기명난(風氣鳴灘)	물난 바람이 바돌란 비를	산년(散年)가다	바람이 어마할다
		비문강개(悲風捲)	죽도고 문난 강물이 가돌남

- STEP 1의 ‘문학 TIP’을 통해 현대산문에서는 지문을 독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어휘와 참고 상식을, 고전산문에서는 고전소설 빈출 어휘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STEP 2  
DAY 01 STEP 1 STEP 2 독서 독해 증진 STEP 3

**연역(演繹)**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 (그 전형은 삼단 논법)

**귀납(歸納)**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제 및 법칙을 이끌어 내는 일.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음. 그런단 판단 내용을 언어나 기호로 표시한 것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STEP 2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서 지문 독해를 위해 영역별(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로 필요한 기본 어휘와 참고 상식을 정리하였고, 지문에 대한 **○** **×**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단 20일, 어휘로 수능 국어 독해를 완성하다

## STEP 3 헛갈리는 어휘

STEP 3

DAY 01    STEP 1    STEP 2    **헛갈리는 어휘**

<b>기결</b> 박 음용 가 / 조 음용 결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한답이라고 결정함. 예)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안의 기결을 선포합니다.	<b>간결</b> 본 간결한 간 / 어 음용 결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함. 예) 그는 그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b>낙찰</b> 표 달양 낙 / 표 낙찰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예) 전기 공사 입찰에서 우리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b>애절</b> 표 음용 애 / 어 음용 절	몹시 애처롭고 슬프음. 예) 그 노릇의 가사가 애절하다.
<b>산정</b> 표 계산 산 / 조 음용 정	생하여 정함. 예) 올해부터는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b>절감</b> 어 음용 절 / 조 음용 감	절감시키다. 예) 그는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b>의결</b> 표 의결하 / 조 음용 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예)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헌 투표를 개정된다.	<b>절실</b> 어 음용 절 / 조 음용 실	'느낌이나 생각이 빠져서 쉽게 감동할 상태에 있음.'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상태에 있음.' 예) 그의 말만 어디 한 마디가 절실하게 와닿았다.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b>책정</b> 표 부과 / 조 음용 정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함. 예) 나뭇잎이 푸르니에는 미리 책정해 뒀습니다.		

•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어휘들, 의미가 유사하여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들,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써야 하는 어휘들을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평가원 기출 어휘 이외에도 중요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확인 문제를 통해 각 어휘의 쓰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해력 증진 점검(DAY 05, 10, 15, 20)

DAY 05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인문·사회)**

⑤~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 P. 196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

기승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공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회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회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초근하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 세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회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회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sup>①</sup>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결연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

**\*한자해설:** 나쁜 상태나 나쁜 상황에 빠짐.

**\*소명(命):**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

는 내면화된 '강박' 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승이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회적 삶은 할 자 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복주하게 된 것이다.

**\*강박(強迫):** 어떤 생각이나 강요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낀다.

**5.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회적 삶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회적 삶에 위상보다 높았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④ 시간-통락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6. @~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DAY 05, DAY 10, DAY 15, DAY 20에서는 한 주를 마무리하며 고난도 문학, 독서 지문을 통해 고난도 수능 국어 기출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점검하는 문제와 어휘 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전 독해 능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부록(사자성어, 관용어), 색인

<p><b>부록 - 주제별 사자성어</b></p> <p><b>개척 과 관련된 한자성어</b></p> <p><b>고식지계</b>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편나 방법. 한때의 안락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미려는 계책을 이르는 말. 예) 글쓴이 문필기가 전혀 초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과 국문 간격을 지킨다는 것은 크라임으로 고식지계에 속한다.</p> <p><b>교육지책</b>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예)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지책을 실행했지만</p> <p><b>공여지책</b> 공한 나머지 생각나 못하여 짜낸 계책.</p>	<p><b>부록 - 관용어</b></p> <p><b>가</b></p> <p>가난이 병보다 무섭다    가난한 삶은 몹시 괴로움.</p> <p>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p> <p>가는 날이 장날이다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p> <p>가림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p> <p>가림일모를 눈 가리기    (1) 자기의 존재나 허물을 숨기려고 미련 (2) 미련하여 아무리 예사도 일러짐을 지</p> <p>가래는 실수를 고치려고 일은</p>	<p><b>색인</b></p> <table border="1"> <tr> <td>기초</td> <td>강령(綱領)</td> <td>P. 027</td> </tr> <tr> <td>6·25 전쟁 *</td> <td>P. 029</td> <td>강박(強迫)</td> </tr> <tr> <td>8·15 광복 *</td> <td>P. 019</td> <td>개방(開發)</td> </tr> <tr> <td>GDP *</td> <td>P. 066</td> <td>개연성(蓋然性)</td> </tr> <tr> <td></td> <td></td> <td>개입(介入)</td> </tr> <tr> <td>가까이다</td> <td>P. 115</td> <td>개체(個體)</td> </tr> <tr> <td>가래(可決)</td> <td>P. 016</td> <td>개편(改編)</td> </tr> <tr> <td></td> <td></td> <td>P. 045</td> </tr> </table>	기초	강령(綱領)	P. 027	6·25 전쟁 *	P. 029	강박(強迫)	8·15 광복 *	P. 019	개방(開發)	GDP *	P. 066	개연성(蓋然性)			개입(介入)	가까이다	P. 115	개체(個體)	가래(可決)	P. 016	개편(改編)			P. 045
기초	강령(綱領)	P. 027																								
6·25 전쟁 *	P. 029	강박(強迫)																								
8·15 광복 *	P. 019	개방(開發)																								
GDP *	P. 066	개연성(蓋然性)																								
		개입(介入)																								
가까이다	P. 115	개체(個體)																								
가래(可決)	P. 016	개편(改編)																								
		P. 045																								

• 독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별 사자성어와 관용어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색인을 통해 지문 독해 중 발견한 어려운 어휘, 알아들 만한 어휘의 뜻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 DAY 01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08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10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16

## DAY 02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18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20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26

## DAY 03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28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30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36

## DAY 04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38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40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46

## DAY 05

- 독해력 증진 점검 (현대문학) P. 048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인문·예술) P. 050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인문·사회) P. 052

## DAY 06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54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56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62

## DAY 07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64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66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72

## DAY 08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74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76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82

## DAY 09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084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086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092

## DAY 10

- 독해력 증진 점검 (고전문학) P. 094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사회) P. 096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사회) P. 098

**DAY 11**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00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02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08

**DAY 12**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10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12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18

**DAY 13**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20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22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28

**DAY 14**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30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32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38

**DAY 15**

- 독해력 증진 점검 (고전문학) P. 140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과학) P. 142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과학·인문) P. 144

**DAY 16**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46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48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54

**DAY 17**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56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58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64

**DAY 18**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66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68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74

**DAY 19**

- STEP 1 문학 독해 증진 P. 176
- STEP 2 독서 독해 증진 P. 178
- STEP 3 헛갈리는 어휘 P. 184

**DAY 20**

- 독해력 증진 점검 (고전문학) P. 186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과학) P. 188
- 독해력 증진 점검 (독서 - 기술·예술) P. 190

**정답과 해설**

P. 194

**부 록**

P. 206

**색 인**

P. 21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학년도 6월 모평B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관이 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충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 염려되는 것이었다.

(중략)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례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엄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가,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뺏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알아두자! 금금한어휘

\*대우(待遇):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일.

\*내지(内地): 식민지에서 본국(지배국)을 이르는 말.

\*장돌뱅이: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禮):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외화(外華): 화려한 걸치례.

\*음덕(蔭德): 조상의 덕.

\*푸념: 마음속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음.

1. ㉠~㉤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두레에는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유품이 담겨 있다.
- ② ㉡: 대회의 규정에 따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탈락하였다.
- ③ ㉢: 누구 한 사람 동정을 하기는커녕 저주와 비방이 빗발치듯 했다.
- ④ ㉣: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 ⑤ ㉤: 그의 소설은 문학사에 길이 남을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다의어 동 동음이의어 더 더 알아둘 어휘

**유풍**

流 흐를 유 / 風 바람 풍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풍속. (=유속(流俗))

예 조선의 축첩 제도는 고려 시대부터 나타난 유풍이다.

더 풍습(流俗):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규정**

規 법 규 / 定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예 문법을 공부할 때에는 맞춤법 규정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비방**

誹 헐뜯을 비 / 謗 헐뜯을 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예 불만이 쌓이고 쌓인 나머지 그는 상사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더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

**정성**

精 짙을 정 / 誠 정성 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예 하던 일에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라.

**수작**

酬 술 권할 수 / 酌 따를 작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그는 뻘한 수작을 꾸며다.

다 수작(酬酌): 1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2 서로 말을 주고 받음. 또는 그 말.

예 수작(秀作): 우수한 작품.

T 문학 TIP

**일제 강점기**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의 민족 수난기.

역사 시간에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배운 바 있을 거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주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오랜 기간 이어온 민족의 정통성을 위협받았던 역사적 암흑기이지. 당시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엄청난 경제적 수탈과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갔어. 이로 인해 당대 우리 민족은 늘 사회적 불안과 긴장 속에서 공핍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지. 그런데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본의 편에 섰던 이들도 적지 않았어. 그래서 당시에 창작된 문학 작품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보여 주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걸여된 이들을 향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STEP 1 정답 1. ⑤ 우스운 '수작'은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수작'은 역사에 남을 만큼 '우수한 작품'을 의미한다.

**연역(演繹)**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 (그 전형은 삼단 논법)

**귀납(歸納)**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이끌어 내는 일.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어. 그러한 판단 내용을 언어나 기호로 표시한 것은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명제의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반성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와 같이 철학적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해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판단하기 어렵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논증'이라고 해. 논증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연역과 귀납을 들 수 있어. 이는 인문 분야의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야.

## 2014학년도 사관학교B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위에서 논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논증 방식의 하나인 연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여기서 연역은 이미 옳다고 알고 있는 명제를 전제로 삼아 새로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을 말해. 대표적인 예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와 같은 보편적인 사실을 전제로 삼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인간'인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결론은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전제에서 이미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즉 연역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전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식(모든 인간은 죽는다. 왜냐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인데 죽으니까!)인 뿐이기 때문에,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녀.

연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귀납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겠지? 귀납은 연역과 정반대의 논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보편적인 사실을 전제로 삼아 개별적인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연역과 달리,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 새로운 보편적 명제를 도출해 내거든. 예를 들어 까마귀가 가득한 섬에서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이 사람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보는 까마귀들은 모두 검은색이야. 그럼 자연히 '까마귀는 검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이렇게 축적된 관찰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귀납에 해당돼. 하지만 귀납에도 한계는 있어. A가 살고 있는 섬의 까마귀 떼는 검은색이었지만, 다른 섬으로 가면 까마귀가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 즉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관찰하여 도출한 명제라고 해도 예외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그 논증은 통째로 오류가 되는 거지.

**+** 지문을 통해 다시 읽어보기

2014학년도 사관학교B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치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Q1**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O  X

**+** 지문을 통해 다시 읽어보기

2016학년도 수능A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Q2**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O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6월 모평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 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알아두자! 금금한 어휘

\*유사(類似): 서로 비슷함.

\*도출(導出):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비판(批判): 현상이나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함.

\*명백(明白):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함.

\*개연성(蓋然性):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기능적(機能的): 하는 구실이나 작용과 관련된 것.

### 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 ② ㉡: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 ③ ㉢: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 ④ ㉣: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 ⑤ ㉤: 목적한 바를 이룸.

다 다의어 동 동음이의어 더 더 알아들 어휘

**특성**

特 特別할 특 / 性 성품 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예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유효**

有 있을 유 / 效 본받을 효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예 심판은 축구공이 선수의 손에 닿았으므로 이번 골은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반응**

反 돌아올 반 / 應 응할 응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

예 아무리 상대를 자극해도 반응이 없었다.

더 **반동(反動)**: 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함.

더 **적응(適應)**: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방식**

方 본뜬 방 / 式 법식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예 너의 생활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구현**

具 갖출 구 / 現 나타낼 현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예 그 나라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동 **구현(俱現)**: 내용이 속속들이 다 드러남.

더 **성취(成就)**: 목적인 바를 이룸.

🔪 **헛갈리는 단어, 홀로 사전 찾기로 더 확실하게 CHECK!**

단어	뜻
공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 **STEP 2** 정답 1. ㉟ '구현'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목적한 바를 이룸.'은 '성취'의 사전적 의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수능

알아두자! 궁금한 어휘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제(前提):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결론(結論): 추론에서 일정한 명제를 전제로 하여 이끌어 낸 판단.

\*일반화(一般化):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정당화(正當化):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들.

\*합리적(合理的):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반증(反證):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경험적(經驗的): 경험에 기초한 것.

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용(使用)되는                      ② ㉡: 실재(實在)할                      ③ ㉢: 입증(立證)할
- ④ ㉣: 인내(忍耐)해                          ⑤ ㉣: 전무(全無)한

다 다의어    동 동음이의어    더 더 알아들 어휘

**사용**

使 부릴 사 / 用 쓸 용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예 환경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금지되었다.

**더 쓰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재로나 도구, 수단이 이용되다.

**실재**

實 열매 실 / 在 있을 재

실제로 존재함.

예 이어도는 제주도의 서남쪽에 실재하는 수중 섬이다.

**더 실제(實際):** 사실의 경우나 형편.

**입증**

立 설 입 / 證 증거 증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예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의료 기관에 있다.

**인내**

忍 참을 인 / 耐 견딜 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예 그에게는 각박한 현실을 이겨 낼 만한 인내가 없다.

**더 견디다:** 물건이 열이나 압력 따위와 같은 외부의 작용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상태나 형태를 유지하다.

**전무**

全 온전할 전 / 無 없을 무

전혀 없음.

예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자 안전사고가 전무하였다.

**헛갈리는 단어, 홀로 사전 찾기로 더 확실하게 CHECK!**

단어	뜻

**STEP 2** 정답 2. ④ '반중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의 '견디다'는 '외부의 작용을 받으면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의 의미를 가진 '인내하다'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가결</b> 可 决을 가 / 决 결정할 결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예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안의 <u>가결</u> 을 선포합니다.
<b>낙찰</b> 落 떨어질 낙 / 札 패 찰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예 전기 공사 입찰에서 우리 업체가 <u>낙찰</u> 을 받았다.
<b>산정</b> 算 계산 산 / 定 정할 정	셈하여 정함. 예 올해부터는 새로운 퇴직금 <u>산정</u> 방식이 적용된다.
<b>의결</b> 議 의논할 의 / 决 결정할 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예 헌법은 국회의 <u>의결</u> 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된다.
<b>책정</b> 策 피 책 / 定 정할 정	계획이나 정책을 세워 결정함. 예 사원들의 휴가비는 미리 <u>책정</u> 을 해 두었다.

Q1

학생회는 반 대표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투표를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b>가해</b> 加 더할 가 / 害 해로울 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침. 예 학교 내에서 <u>가해</u> 행동을 일절 금한다.
<b>유린</b> 蹂 밟을 유 / 躪 짓밟을 린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 예 세상 사람에게 천대를 당하고 <u>유린</u> 을 당해야만 하는가?
<b>침범</b> 侵 침노할 침 / 犯 범할 범	남의 영토나 권리, 재산, 신분 따위를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침. 예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b>침해</b> 侵 침노할 침 / 害 해로울 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예 친한 친구라 해도 사생활을 <u>침해</u> 해서는 안 된다.

Q2

경찰은 학생들을 치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b>간절</b> 懇 간절할 간 / 切 끊을 절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함. 예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u>간절</u> 하였다.
<b>애절</b> 哀 슬플 애 / 切 끊을 절	몹시 애처롭고 슬픔. 예 그 노래는 가사가 <u>애절</u> 하다.
<b>절감</b> 切 끊을 절 / 感 느낄 감	절실히 느낌. 예 그는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u>절감</u> 했다.
<b>절실</b> 切 끊을 절 / 實 열매 실	<sup>1</sup>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음. <sup>2</sup>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음. 예 <sup>1</sup>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u>절실</u> 하게 와닿았다. <sup>2</sup>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u>절실</u> 하다.

**Q3** 나는 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할 수 있었다.

<b>감별</b> 鑑 거울 감 / 別 나눌 별	예술 작품이나 골동품 따위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함. 예 새로 발견된 유물의 <u>감별</u> 을 실시한 결과, 국보급 문화재로 판명되었다.
<b>구별</b> 區 구분할 구 / 別 나눌 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예 요즘 옷은 남녀의 <u>구별</u> 이 없는 경우가 많다.
<b>선별</b> 選 가릴 선 / 別 나눌 별	가려서 따로 나눔. 예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u>선별</u> 된 학생들이다.
<b>차별</b> 差 어그러질 차 / 別 나눌 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예 조선 시대에는 적서 <u>차별</u> 이 존재하였다.

**Q4** 집안에 있던 도자기를  했더니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던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월 모평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를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 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옷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벨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옥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은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제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 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콧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알아두자! 궁금한 어휘

\*신념(信念): 굳게 믿는 마음.

\*아집(我執):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독단(獨斷):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

\*경화(硬化): 주장이나 의견, 태도, 사고방식 따위가 강경해짐.

\*위인(爲人): 됴됨이로 본 그 사람.

\*행패(行悻):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함.

불현듯 최상운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운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더니! 최상운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이라도 나가 엮으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나.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딱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율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야 — 채권 삼니다야 —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삼니다야 —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야 —”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서광(瑞光)**: 상서로운 빛.

\***찬미(讚美)**: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

\***청승**: 공상스럽고 처량하여 보기에 언짢은 태도나 행동.

### 1.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
- ② ㉡: 의심을 품음.
- ③ ㉢: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 ④ ㉣: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 ⑤ ㉤: 본디의 특색이나 정체.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9월 모평

알아두자! 궁금한 어휘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속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속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 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

\*지배적(支配的): 매우 우세하거나 주도적인 것.

\*산업 혁명(産業革命):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

\*획일적(劃一的): 모두가 한결같아서 차이가 없는 것.

\*동원(動員):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함.

\*간극(間隙):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현상 사이의 틈.

\*선구자(先驅者):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소외(疏外):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병치(並置):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

\*모호(模糊)하다: 말이나 태도가 흐릿하여 분명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떨어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과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연쇄(連鎖): 사물이나 현상이 사슬처럼 서로 이어져 통일체를 이룸.

\*향유(享有): 누리어 가짐.

\*단초(端初):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일면적(一面的): 한 방면으로 치우치는 것.

###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봉합(縫合)하려는
- ② ㉡: 보증(保證)하는
- ③ ㉢: 연상(聯想)하게
- ④ ㉣: 의지(依支)하여
- ⑤ ㉣: 개편(改編)하는

##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9월 모평B

알아두자! 궁금한 어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접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

\*전락(轉落):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소명(召命):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불식(拂拭): 먼지를 떨고 훑는다는 뜻으로, 의심이나 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털어 없앴을 이르는 말.

\*위상(位相):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본격화(本格化): 본격적이 됨.

\*근면(勤勉):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

\*반작용(反作用): 어떤 움직임에 대하여 그것을 거스르는 반대의 움직임이 생겨남.

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강박(強迫):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

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헛갈리는 단어, 홀로 사전 찾기로 더 확실하게 CHECK!

단어	뜻

DAY 18

문제 P. 169

A1. X

2015학년도 수능B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지며,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는 것은 이심률이 작을수록 궤도가 원 모양에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현재의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약 0.055)은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약 0.017)보다 크다. 즉 이심률이 작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 모양에 더 가깝다.

A2. O

2015학년도 수능B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고 했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근일점에서 관측한 각지름이 원일점에서 관측한 각지름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AY 19

문제 P. 179

A1. X

2014학년도 6월 모평A

EPROM의 셀 면적은 EEPROM보다 작다. 그리고 EPROM과 플래시 메모리는 모두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였으므로, EPROM과 플래시 메모리의 셀 면적은 같다.

A2. O

2014학년도 6월 모평A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에서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고 했다. 즉 터널 절연체는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자를 통과시키므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므로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지우고 쓸 수 없을 것이다.

DAY 20

문제 P. 186

정답 1. ㉓ 2. ㉑ 3. ㉓ 4. ㉒ 5. ㉑ 6. ㉒

1. ㉓

2014학년도 수능B

강남홍은 남천문에 올라 백옥루에서 취하여 잠을 자는 선관, 선녀들을 보기만 하였으므로 ‘재회’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㉑ 강남홍은 꿈속에서 한 명산의 봉우리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한 보살이 인간지락이 어떠하냐고 묻자 ‘도사는 누구’냐며 되묻고 있다. 이로 보아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 ㉒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고, ‘무지개를 밝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남천문이므로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했다고 볼 수 있다.
- ㉔ 보살은 취하여 자는 한 선관과 다섯 선녀에 대해 언급하며, 강남홍에게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라고 말한다. 즉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는 인물인 것이다.
- ㉕ 허 부인은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다고 했는데,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허 부인이 돌부처에게 기도를 한 뒤 낳은 연왕이 곧 양창곡임을 알 수 있다.

2. ㉑

2014학년도 수능B

‘배회하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함께 사귀어 잘 지내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끼어 들어 같이 뒹박다’는 의미의 ‘아울리며’로 바뀌 쓸 수 없다. 문맥상 ‘배회하며’는 ‘돌아다니며’ 등의 단어와 바뀌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㉑ ‘의지하여’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댈을 이르는 말이므로 ‘기대어’와 바뀌 쓸 수 있다.
- ㉒ ‘망연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를 이르는 말이므로 ‘멍하니’와 바뀌 쓸 수 있다.
- ㉓ ‘인도하여’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이끌어’와 바뀌 쓸 수 있다.
- ㉔ ‘휘황한데’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임을 이르는 말이므로 ‘눈부신데’와 바뀌 쓸 수 있다.

3. ㉓

2015학년도 수능A

2문단에서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후에 '요소로 합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라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4. ㉔

2015학년도 수능A

㉔은 '깊이나 비울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의 '높다'와 그 문맥적 의미가 같다.

오답 풀이

- ① '하늘이 높다'의 '높다'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높이가 매우 높다'의 '높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의 '높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이름이 높다'의 '높다'는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 ㉕

2017학년도 9월 모평

4문단에서 사보아 주택은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고 한 것을 통해 사보아 주택이 층을 구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판테온은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었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사보아 주택은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그곳을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고 한 것을 통해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캠펠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기둥 사이를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으므로,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판테온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고, 4문단에서 사보아 주택은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6. ㉖

2017학년도 9월 모평

㉖의 '원형'은 '동근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 '후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다'의 '원형'은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㉖의 '산물'은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적절하다.
- ③ ㉖의 '점성'은 '차지고 끈끈한 성질'을 이르는 말로 적절하다.
- ④ ㉖의 '위주'는 '옳음으로 삼음'을 이르는 말로 적절하다.
- ⑤ ㉖의 '영감'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이르는 말로 적절하다.

## 부록 - 주제별 사자성어

### '계책'과 관련된 한자성어

#### 고식지계

姑 잠시 高 / 息 실 息 /  
之 어조사 計 / 計 피할 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돌려 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예 금연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식지계에 불과한 것이다.

#### 고육지책

苦 쓸 高 / 肉 고기 肉 /  
之 어조사 計 / 策 피 策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예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육지책을 실행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 궁여지책

窮 다할 宮 / 餘 남을 餘 /  
之 어조사 計 / 策 피 策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예 그 방법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 권모술수

權 권세 權 / 謀 計 謀 /  
術 재주 術 / 數 셈 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예 나는 권모술수에 능한 그에게 감탄하면서도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 '상충', '모순'과 관련된 한자성어

#### 구밀복검

口 입 구 / 蜜 꿀 蜜 /  
腹 배 복 / 劍 칼 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예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가 못하면, 혹시 구밀복검일지도 모르니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해.

#### 면중복배

面 낯 면 / 從 좃을 從 /  
腹 배 복 / 背 배반할 배

겉으로는 복중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예 덕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고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자연히 면중복배 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자가당착

自 스스로 자 / 家 집 가 /  
撞 칠 당 / 着 붙을 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예 이 논문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표리부동

表 겉 표 / 裏 속 리 /  
不 아닐 부 / 同 같을 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예 널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리부동 할 수 있니?

### '횡포'와 관련된 한자성어

#### 가렴주구

苛 가혹할 가 / 斂 거둘 령 /  
誅 벌 주 / 求 구할 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예 조선 시대에는 관아의 혹독한 가렴주구 때문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가정맹어호

苛 가혹할 가 / 政 정치 정 /  
猛 새나을 맹 / 於 어조사 어 /  
虎 범 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해가 큼을 이르는 말.

예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국왕의 명령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가정맹어호라 할 만했다.

#### 주지육림

酒 술 주 / 池 못 지 /  
肉 고기 육 / 林 수풀 립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러운 술잔치를 이르는 말.

예 임금이 정치를 돌보지 않고 주지육림에 빠져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